



유영제약 연골주사 '아트리플러스'

3회 투여로 6~12개월 장기 효과 지속

관절 전문의들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릎 관절에 변화가 오면서 연골 및 활액을 만들어 내는 세포가 노화되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 질환은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생기며 방치할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해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완치가 매우 어렵게 된다.

히알루론산 제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이다. 현재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흔하게 사용하는 약물은 히알루론산 제제를 비롯, 통증부위에 붙이는 패취제, 소염진통제(NSAID),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이 중 패취제와 소염진통제는 일시적 소염, 진통효과는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

스테로이드 제제도 일시적 효과는 크지만 장기간 사용시 칼슘의 손실로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아트리플러스'는 관절염을 앓는 부위에 주입할 경우, 상처가 난 연골 주변에 점탄성막을 형성, 윤활작용과 충격을

흡수하면서 연골치료가 이루어져 활액조직의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아트리플러스는 기존에 5회 투여하던 저분자량 연골주사제를 개량해 3회 투여만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기존 5회 제형에 비해 분자량(3배)과 점탄성(25배)도 뛰어나다.

아트리플러스는 기존 제품들이 대부분 주요 성분을 닭버슬에서 추출한 것과는 달리, 미생물을 발효, 정제해 추출했기 때문에 조류 알러지 감염 가능성이 없고 높은 순도와 투여횟수의 감소로 감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약물의 필요충분 조건인 약효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립한 셈이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아트리플러스는 국내 1위 천연원료 업체인 바이오랜드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cGMP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만큼 품질을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MP저널